

“주인 따라 영양 챙겨요”... 제약사, 반려동물 건기식 대전

사람이 먹어도 문제없는 원료 담아 대용펫, 식약처 인증 시설서 생산 ‘견육고’, 반려견 영양제 브랜드

국내 제약사들이 오랜 기간 주목을 받은 스테디셀러 건강기능식품을 반려동물용으로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원료를 담은 ‘휴먼 그레이트’ 수준을 추구해, 좋은 것은 나눠먹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용펫은 24일 대용제약의 스테디셀러 ‘임팩타민’을 반려동물 전용 비타민 제품으로 개발한 임팩타민펫 2종(강아지, 고양이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임팩타민펫은 대용제약의 고품질 활성형 비타민 ‘임팩타민’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다. 임팩타민과 마찬가지로 활력 증진에 필수적인 비타민B 8종을 한 알에 모두 담았다. 사료 섭취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A, D, E, K와 아연, 셀렌, 타우린 등도 반려견과 반려묘의 생리학적 특성에 맞게 반영했다.



광동제약 ‘견육고’

대용펫은 휴먼 그레이트를 넘어 ‘휴먼 스탠다드’라는 간간한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 제조시설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에서 생산한다. 또 사료관리법 기준보다 간간한 식품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했으며, 건기식 표시 기준법에 맞춰 영양성분도 꼼꼼하게 모두 표시했다.

대용펫 문제봉 대표는 “좋은 사료를 찾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영양제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대



대용펫 ‘임팩타민펫 2종’

용펫은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건강보조 제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의 천연물 소재 건기식 ‘견육고’는 프리미엄 반려견 영양제 ‘견육고’로 새롭게 탄생했다. 광동제약의 천연물 원료 제조·배합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된 국내 첫 전통원료 반려견 영양제 브랜드다.

최근 광동제약은 견육고의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라인인 ‘견육고 본(本)’과 ‘견육고 장(匠)’을 출시했다. 모두 숙지황·복령혼합농축액과 홍삼농축액, 아카시아벌꿀 등을 주원료로 한다.

중근당바이오키의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라비벳유산균’ 역시 지속적인 인

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유산균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근당건강의 ‘락토픽’의 주원료를 활용했다.

잇몸치료제 ‘인사돌’로 유명한 동국제약은 인사돌의 성분을 그대로 담은 국내 첫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반려견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정’을 판매 중이다.

일동제약은 주력 제품 ‘비오비타’ 성분을 담아 반려동물 잔강감 프로바이오틱스 ‘일동제약 펫 비오비타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판매 중인 반려견 치매치료제 ‘제다큐어’는 바이오벤처 지엔티파마가 개발 중인 치매치료제 핵심 물질이 그대로 담겨있어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 암, 치매와 같이 사람과 같은 병을 앓는다”며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챙기고 싶은 욕구와 관심이 점점 커지며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은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키운 스타트업... 1.3조 투자유치 (누적)

2022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 신설

삼성전자가 육성한 외부 스타트업의 기술을 볼 수 있는 ‘2022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개최됐다.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지난 1년간 삼성전자가 직접 육성한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의 졸업식으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의 육성 성과를 알리고 사업 협력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행사를 열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과 서비스 발굴

삼성전자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구현-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C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AI, 메타버스, 웰니스,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C랩 미디어데이’에서 C랩 아웃사이드 4기 주요 스타트업들이 발표 중인 모습. /삼성전자

시장을 열어가는 20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중에는 ▲올해 2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뉴빌리티’ ▲창업 1년 만에 5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벡서’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알고케어’ ▲월 매출 5배 성장 등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포티파이’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C랩 아웃사이드’로 초기 스타트업 지원

축적된 C랩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신설했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1억 사업 지원금 지급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내 전용 업무공간 및 식사·교통 제공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관계사와의 협력 기회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1년간 지원한다.

그 결과 아웃사이드 46개, 스핀오프 61개 등 총 521개 C랩 스타트업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조 3400억원, 창출한 일자리는 8700여 개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중기부, 상권 활성화사업 5곳 추가 선정

5년간 60~120억 규모 투자

정부가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를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하고 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해 이번 첫 대상지로 경남 함양을 선정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이 대상 개별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억~12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종합 지원한다.

경남 함양은 지리산, 삼림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기존의 쌀전투

화거리, 불로장생특화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는 두류공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축제와 이벤트들을 개최해 ‘두류점코(젊음의 CORE)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북 정읍은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을 테마로 떡 만들기, 전통주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북 보은은 대추순대전골, 대추디저트 등 지역 특화음식 개발·보급 및 푸드거리 조성 등을 통해 충북 보은 자체 브랜드와 특화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U+ ‘포동’, 등록전 10만 마리 돌파

반려견 행동·습관 교정 플랫폼

LG유플러스는 반려견 훈련 서비스 플랫폼 ‘포동(For Dong)’에 등록된 반려견이 출시 4개월여 만에 1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을 겨냥해 선보인 포동은 반려견의 행동과 습관을 긍정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주요 서비스로 ▲반려견 성향분석 검사 ‘DBTI’ ▲반려견

성향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견주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성향 상담소’ ▲훈련사와 견주를 연결시켜주는 ‘훈련 클래스’가 있다.

지난 7월 말 출시한 포동은 11월 현재 누적 등록 반려견 10만마리를 돌파했다. 일평균 830마리의 반려견이 가입된 셈이다. 서비스에서 가장 특색 있는 서비스인 DBTI 신청 건수는 6만 5000건에 달하며, 성향 상담소에는 1200여건의 견주들의 고민이 공유되어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받았다.

포동이 반려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반려견 문제 행동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솔루션과 달리, 각각 각색인 반려견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양육방식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포동은 반려견의 다양한 행동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문제 행동을 비롯해 평상시 작은 습관들까지 긍정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윤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 교통안전공단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

공동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노력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상과 항공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협력한다고 24일 밝혔다.

KT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 서울 송파구에 KT 송파사옥에서 최강림 KT AI Mobility사업단장과 한정현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KT의 커넥티비티(Connectivity)·교통인프라·전기차 등 지상모빌리티와 UAM 등 항공 모빌리티

역량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 전문 역량을 융합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적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분야를 선정했고,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기차(EV) 운행 데이터 기반 배터리 안전기술 분야 공동기술 개발 협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 ▲교통인프라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 및 공동 사업화 등을 진행한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활성화가 목표다. /채윤정 기자 echo@